

난 그날 빌어먹을 신들 앞에서 맹세했다.

내게서 유일하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앗아간 도시에 반드시 같은 상실과 좌절의 공포를 안겨주겠다고.

그토록 수상한 명령을 내리던, 전부 도시를 위한 것이라던, 내 인생을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덮어 씌우라던 신들에게.

신을 거스른 죄는 컸지만, 그 방향이 불분명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어설픈 반란을 끝맺고 말았다.

이딴 더러운 신들 아래에서, 나는 겸허하게 자신으로서 있을 수 없었다.

.

.

.

악몽을 꾸다면 장소는 언제나 비슷했다.

하얀 망토를 펼럭이는 대행자들과, 선홍색으로 핏물진 방.

그 사이에서는 낡은 카세트테이프에 담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퍼진다.

악몽 속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한 걸음 내딛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둡고 비좁은 방의 문을 달칵 열고 나서야 이것이 무슨 사태인지 알아차린다.

빌어먹게도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퍼진다. 나는 발치에 놓인, 주인 없는 카세트테이프를 집어든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방 한가운데로 이어진 핏물진 길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차갑디 차가운 바닥에 놓여있는 것이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판단이 늦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누구의 짓인지.

그제서야 카세트테이프에 끼워진 익숙한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수행자 시절 익히 눈에 담았던 종이. 필시 지령의 뜻을 알리는 쪽지이리라.

검지의 표식이 찍힌 그 쪽지에는 지령이 적혀 있지 않았다. 정확히는 지령이 쓰인 부분이 검은 펜으로 쓰인 꼬불꼬불한 선으로 뒤덮여 있었고,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적혀 있는 급히 휘갈긴 듯한 글씨였다.

‘너는 완성되어야만 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어렵풋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 지령은 내게 머리를 기르라고 했다. 나는 곧이곧대로 믿고 머리를 길렀다. 나는 짧은 머리를 더 좋아했지만, 지령에 뜻에 비하면 사소한 걸림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언젠가부터 지령은 붉은색 머리끈으로 머리카락의 한 움큼을 묶어 올리라고 했다. 원체 여성스러운 복장을 잘 하지 않았던 내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령대로 행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다.

언젠가부터 지령은 반복적으로 같은 연극의 대본을 읽으며 연기하라고 했다. 지루함과 더불어 하찮은 분노가 느껴졌지만, 전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것은 그것대로고, 이것은 이것대로다.

그러나 혈육의 죽음을 겪고 난 이후, 그리고 눈부신 빛과 끝없는 어둠이 도시를 가로지른 이후. 지령은 더 알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음악을 배우라.

간단한 음악 학원의 과정을 수료했다.

지휘를 배우라.

검지가 주선해준 자리에서 이름난 지휘자에게 지휘법을 배웠다.

푸른 착장을 하여라.

기본적으로 검지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나는 푸른 보석 등으로 간단하게 꾸밈을 더했다.

대낮의 사용법을 익혀라.

작은 체구로 그것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지만, 어찌저찌 다룰 수 있게는 됐다.

마치 급하게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처럼,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지시사항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기껏 몇 달 동안 엉덩이 언저리까지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사소한 의문이 내 머릿속을 채운 순간부터, 지령은 내게 있어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

하루종일 수천가지의 음악을 들으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처음으로 지령을 무시했다.

그동안 억눌렀던 사소한, 아니 들끓는 분노를 어디로든 향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서 화풀이로 동부의 흑운회 패거리를 모조리 죽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성을 지니지 않은 야수와 같이, 나는 무차별적으로 무기를 휘둘렀다.

패거리 노릇을 하던 흑운회. 뒷돈 받던 사무소. 불법 총기를 유통하던 공방. 보호세만 걷고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뒷골목 자경단. 무능한 날개 경비원.

기분을 풀기 위해서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도 없이 무기를 휘두른 나는, 하루의 일과를 서재에서 책을 읽는 것으로 끝냈다.

부조리가 존재하는 곳만을 반파한 것은 내 나름대로의 양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작 내 혈육을 죽게 한 건 빌어먹을 신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항상 허무한 악몽은 피아노 소리로 끝이 났다. 그리고 눈앞에는 과거 핏물진 길이 이어져 있던 어둡고 비좁은 방의 천장이 보인다. 나는 그때마다 살아있음에 다행임을 느꼈다.

나는 무차별적인 분풀이를 멈추고, 차근차근 대본을 읽듯 신들을 향한 반란을 계획했다.

들킬지도 모르고,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불안과 벅참의 양감이 교차하며, 작전을 짜는 데에 걸린 세월만 백만 년이 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 나는 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더 이상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신들이 나를 죽이길 바란다면. 무수한 대행자들이 나를 죽이러 찾아온다면.

아주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다른 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그런 전개는 아니었다.

반란은 보기좋게 실패했다.

죽음을 앞뒀다고 생각했던 나는 도리어 신에게 괴상한 이름을 받았다.

신탁의 노예.

보통 검지를 배반한 자들은 대행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나는 예외였다. 지령에 의해 검지에 종속된 노예가 되었다.

그날 내 세계는 다시 깨졌다. 뒤돌아보기만 하는 날의 시작이었다.

나는 지령을 최대한 무시하려 했다. 빼빅거리는 지령 단말기의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기에, 나는 그것을 줄곧 아무 가방에 던져놓아두곤 했다.

하지만 곧 대행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내게서 가방을 있는대로 가져갔다. 심지어 내가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기만 해도 어디선가 나타난 대행자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어처구니없지만 이것이 검지의 압박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소함이 쌓여 내게는 스트레스가 되어가는 것이다.

빌어먹을 단말기는 쉴새없이 뻘뻘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그날 들었던 카세트테이프의 피아노 소리와 함께 섞여 울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마치 지령이 내 머릿속을 조종하듯, 나는 은근히 지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 신탁의 노예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까.

결국 수천가지의 음악은 여전히 듣고 있고, 머리카락도 강제로 자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보고 말았다.

태연하게 엄지 조직원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푸른 눈동자.

잔향악단의 단장, 한때 색의 이름을 달았던 해결사.

푸른잔향 아르칼리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지령은 나를 저 새끼로 만드려고 했구나.

잔향악단의 지휘자인 그는 동생을 죽인 피아니스트의 음악에 감명을 받아 그날을 재현하고자 했다.

나는 그렇게 익히기 힘들던 대낯을 익숙하게 휘두르는 모습.

과거의 나와 닮은, 긴 머리칼.

푸른색 옷차림.

그가 빌어먹게 익숙한 피아노 소리를 흥얼거릴 때,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어째서 신은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드려고 했을까?

대낯을 휘두르는 특색급 인재가 필요했던 거라면, 평범한 대행자에 지나지 않았던 나는 그다지 적격자가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전혀 닮은 게 없는 나와 그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이 없는 사이에 하나뿐인 혈육이 살해당했다는 것 정도일까.

인간의 삶은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왜 지령은 내가 애써 기른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을까?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하기 위함이었을까?

그 해답은 나로선 떠올릴 수 없었다.

반강제적으로 지령을 수행하며,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 눈을 감으며 하루를 마친다.

그런 날들만이 이어지곤 했다.

.  
. .

내가 거미집의 신탁 대행자를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다.

지령에 따라 거미집에 발을 들였다. 외부 강사라는 명목인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베는 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지령은 내게 궁금하지 않은 지식을 알려주었다.

거미집의 약지 마에스트로는 신탁 대행자를 도서관의 해결사를 따라하는 모조품이라 칭했다.

그에 호기심이 동해, 나는 신탁 대행자에게 물었다.

너는 대체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냐고.

잠시 온화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되물었다.

그럼 너는, 대체 누구를 따라하고 있냐고.

모른다고 즉답했다. 들고 있는 대낮은 누가 봐도 푸른잔향의 것과 닮아 있지만, 나도 내가 누구를 모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지령 단말기가 삐빅거렸다. 그것을 읽은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너는 도서관의 도서관장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구나.

뭐?

얼이 빠졌다.

그의 단말기가 삐빅대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정작 내 단말기가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수없이 읽다 만 연극 대본.

기른 노력이 허망할 정도로 결국 다시 짧아진 머리칼.

이제는 필요없는 붉은 머리끈.

넥타이 대신 착용했던 아이보리색 크라바트.

그 모든 게 도서관장의 것이었나.

지령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 것은 확인했다. 그러나 신들의 뜻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왜 푸른잔향과 도서관장 사이에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걸까.

나는 짐작했다.

아마도, 그들의 경험에서 무언가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걸 내가 고민해봐도 의미는 없다.

그 어디에도 의미는 없다. 소망은 소망이고, 아무리 기대를 해도 나를 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 이런 굴레에 빠지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생각을 끊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애써 생각을 멈췄다.

뭐, 엿이나 먹으라지. 일을 이딴 방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는 얼빠진 신들.

어차피 단 하나의 답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마치 별처럼, 모든 것은 서로 얹혀 있기 마련이니까.